

나와 大學과 圖書館

鄭 璠
哲博·東大教授

1

해방 직후 한 미국인 교수가 한국인 교수의 가정에 초대받으러 와서 무슨 장서가 이리도 많느냐? 라고 의아해 하면서 “당신의 대학 도서관에는 책이 없어서 그렇느냐?”라는 듯한 뜻을 말하고, 우리네 대학에선 도시 이러한 사설 도서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을 절절히 암시하더라는 것이다.

대학 도서관이 영세하다. 교수의 서재가 절로 만권의 장서를 갖추어야 했고, 또 그러노라니 교수의 생계는 어려워만지면서 흡사 얼굴에 코 뿐이라는 격으로 빈한한 가정에 서재만 커져가는 결과가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대학도서관은 그동안에 다소 자랐다고는 하나, 처음부터의 불신공조때문에 백안시되고 있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연구실의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되어있는 한국 대학 교수의 거의 일반화 되다시피한 습성이 다.

나는 대학을 갓 나온 해의 약 일년동안을 일본의 동경에 눌러 앉아 독일어를 위시한 전공언어에 힘쓰는 한편, 동경제대법학부 도서관에서 일한 적이 있다. 대학의 역사 70년이 되는 동경 대학의 한 단과대학 도서관에 있어서의 교수와 도서관과의 유기적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나는 살펴보고 또 거기서 배운 것의 모형을 내 머리 속에 부동의 자세로 자리잡고 있는 대학 도서관의 像이며, 體系다. 배를 가리지 않고 교수가 신청만 하면 작각 신간서가 연구실로 배달되곤 하였으니 교수가 돈을 가불한다거나, 전당을 잡힌다거나 하면서까지 책을 구입하여 굳어 사설 도서관을 만들 필요도 또 아내의 눈치를 살펴가며 흡사 암거래 물건을 감추듯 숨기거나 거짓말로 얼버무려 버리는 따위의 매우 멧멧하지 못한 구입 방법을 취할 필요도 그들에게는 없다. 따라서 그들의 서재는 연구실이요, 가정은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피로한 심신의 안식처이며 가족들과의 친목의 자리라고 하는 본래의 그것이 될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의 교수들은 가정이 단순한 가정

아닌 서재요, 사실 연구실이므로 그들의 가방이나 보따리는 날마다 노상 무겁지만 하고 그래서 가족 중의 학생들의 누부보다도 공부만 하게 마련인 가정은 가족들에게 한낱 “하숙한 학생”일뿐이요, 그바람에 가족들로부터는 끝방생님이나 이방인 취급 받기가 일쑤였고, 또 그러다 보니 세대간의 단층이 생기기엔 알맞았고, 이런 끝에 교육자의 자제들의 문제아에로의 전락 문제가 더러 튀어나오기도 했다.

요즘 대학의 연구실은 실상가상으로 강의실의 연장으로서 학생들과의 혼용의 구실을 해야한다고 요청되고 있다. 덕분에 가정의 서재화라고 하는 낡은 경향은 더욱 박차를 가하여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대학 재직 중이라고 할지라도, 대학에 들어오기 前이나 퇴직後나 그 사정에는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나는 학생 때, 六堂이 어찌다가 생김 20원이라는 대금으로 쌀을 구입하러 나갔다가, 잔뜩 들고 온 것이 모처럼의 쌀가마가 아니고 그 속에 책만 가득차 있어 가족들을 슬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대학이 없던 시대의 교수 아닌 학자들의 고심참담하던 이 혼한 이야기들은 그러나 위에서 우리가 보아온 온갖 사연들을 잘도 밀반질해 주고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책은 도서관에만 있고 공부는 연구실에서만 한다고 하는 통상관념이 우리에게 일찌기 集賢殿 시절을 내어 놓고는 별로 없었던 셈이니, 한국의 이러한 특수사정은 대체 언제나 해소될 것인지 기약할 나위가 없다.

2

나는 중학 시절에 교과서 아닌 과외공부에만 비정상적으로 몰두하던 비모범생이었기로 노상 교실보다는 도서관이, 귀향시의 가정보다는 山寺가 더욱 친근한 생활과 성장의 자리였다. 수업이 끝나기가 바쁘게 도서관으로 출달음질을 쳤으므로, 저녁 밥은 언제나 하숙으로 돌아간 뒤의 밤 10시가 지나서였다. 그 무렵 나에게 있어서 과외공부란 오늘과는 다른 일반교양 독서였으니, 오늘의 과외공부를 위한 “도서실” 아닌 본래

의 의미의 도서관이었다. 꼭 하나 다른 것은 교과서 아닌 교양서를 가지고 가서 읽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그것뿐이다. 일반 도서관이 사실 도서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 대출한 책에 메모를 한다거나, 밑줄을 마음대로 쓱쓱 그어낼 수가 없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조그마한 지정된 열람석과 공부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도서관 전체의 분위기는 제법 개인의 공부방으로서의 구실을 맡아 주기에 넉넉했으므로, 나에게서는 특히 중학 시절 또는 그 이래로 일반 도서관은 학교와 교실 이상으로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었다. 내가 학생 시절을 회상할 때 학교와 더불어 그 이상으로 서울의 소공동에 있던 시립 도서관과 남대문로 위치 했던 “총독부 도서관”(지금은 헐리고 옮겨 감)과 종로에 자리 했던 시립도서관 종로 분관의 초라한 모습과 용산에선 유일한 시립도서관 분관과 일본의 上野에 있던 국립도서관들을 잊을 수가 없다. 서울에서만도 만 9년을 보낸 젊은 날의 추억 속에서 위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접철된 나의 생활을 도려내한다면 남는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중학 시절엔 더욱 격에 맞는 소공동 소재의 우중충한 시립 도서관이 애용되었으므로, 시험 때의 공부도 여기서만 하게 되었고, 또 한번은 졸업 후의 진학 문제에 대한 아버님과 마지막 해결을 위한 36매의 장문 편지도 오랜 짝 사랑의 고뇌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의 러브·레터 16장도 바로 여기서 쓰여졌다.

단골이던 시립 도서관의 한 우두머리 격의 흡사 일 본인 얼굴 모습의 작은 키의 단아한 신사를 나는 언젠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의 일반 열람실의 구조나 내가 곧잘 차지하던 좌석의 위치며 특히 전기한 바 두 가지의 획기적인 편지가 작성되던 그 우연의 자리도 나의 뇌리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가 다 인간의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한없이 긴 일생을 손쉽게 좌우할 수 있었던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전문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의 철학과로 진학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독일어 과목이 어디에도 없던 터라, 완전 독학을 해야 했다. 변변하지 않지만 바로 그 기초를 닦은 곳이 그날의 총독부 도서관이고 보면,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소리를 내지 못하는 도서관의 애로가 어학 공부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강요했을 것인가는 적어도 그 시절엔 나 자신도 미처 몰랐었다. 어찌다가 조금 입을 눌러 「데어 레스 델 텐」을 의우노라면 직각 결 자리 열람자의 눈총이 와 닿곤하던 것이 어제된듯 눈에 선하다.

한국 미술의 유일한 이해자며 옹호자였던일 일본인 柳宗悅씨의 다른 저서의 거의 전부를 도서관 책으로

독파한 그 시절의 젊은 나에게 오직 하나 <朝鮮과 그美術 1922>만이 국내의 어느 도서관에도 현 책방에도 목록조차 없는 발금의 책이 되어있음을 알고, 못내 안타깝게 여겨오던차, 동경으로 옮겨가자마자 일본제일의 上野 도서관을 찾아가게 된 것이었다. 도서목록 상자를 뒤지던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얼마나 열망하던 책이었던고 그렇게 반가운 일일 수가 없었다. 334년의 그 미문의 4·6판 책을 나는 사흘 걸려 끝냈다. 향간에 몰입된 채 자신을 잊은 듯 했고, 여기가 만인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것조차도 잊는가 했다. 눈물을 닦고 있는 꼴을 걸 일본인 하나는 피이한 듯 힐끗힐끗 훑쳐 보았고 “光化門”에 관한 문장을 읽을 때는 일본 관련이 결어서 노려보고 있지 않나 싶어 소름이 끼쳤다. 서울에서 같으면 영낙없는 “치안유지법”의 범법자였을 것이니까 무리도 아니다. 꿈속에서처럼 여기는 서울이 아니고, 동경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느라 무진애를 썼다. 해방 후 이 대목을 대학생들에게 읽어 주었을 때 한 두 사람은 감격에 겨워 튀어나오기조차 했었으니까 가히 알만하다. 내가 저자를 찾아가서 한국 미술에 관한 일본인으로서의 진실의 소리를 들은 것도 바로 그때부터의 일이다.

끝으로 나는 내가 철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철학자 라이프니츠(Leipniz, 1646~1716)가 오랜 의도 끝에 하노버(Hannover) 도서관장이 되어(1677) 정착하던 때와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이 또한 오랜 불우 끝에 스코트랜드 제일의 장서를 자랑하는 법률도서관장이 되어 (1752) 처음으로 일정한 직장의 봉급으로 안정된 생활을 마련하던 때의 각자의 생산적 성과가 얼마나 컸는가에 대하여 새삼 감명을 받는다. 특히 흄의 경우, 5년간에 걸친 관장생활은 다른 곳에서는 얻을 도리가 없는 결실을 그에게 가져 왔으니, 획기적인 저서 <英國史>(1754~62)의 상재가 바로 그것이다. 위 두 철학자가 모두 대학교수 아닌 재야의 학자로서, 그리고 대학의 연구실 아닌 일반 도서관의 사무직의 자리에서, 대학 도서관 이용의 혜택을 백프로 입고 있는 대학 교수 이상의 업적을 올린 저간의 자랑스런 사실들은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혁혁한 성과를 거처서만, 대학 도서관 곧 대학교육의 한날 보조수단으로서의 도서관은 그 단순한 차원에서 일약 도서관이 중심이 되는 대학교육 곧 <도서관대학>의 장차 도래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 서게 될 것이다.